

광역철도 입장차...광주시 “노선 변경” 전남도 “예타 먼저”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오늘까지 답변” 요청 “회신 없으며 동의로 간주...내일 국토부 예타중지 신청” 전남지사 “광주시 입장 존중하지만 지금은 예타가 중요”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에 대해 광주시가 전남도와 나주시에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중지 신청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전남도는 “타당성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선(先) 예타 통과, 후(後) 노선개편 논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 전남도와 나주시에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을 통해 “광역철도 효천 경유 노선 변경과 관련해 경제성 향상 방안 마련 용역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를 지난해 연말부터 수차례 요청했다”며 “그러나 현재

까지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타 중지를 국토부에 요청하겠다”며 “25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안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가 묵묵부답”이라며 “최근에는 ‘협의회에서 할 이야기가 없어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해 예타 중지 신청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광역철도가 광주 효천역을 경유할 경우 이용객이 늘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의 최후 통첩에 전남도는 원론적 입

장이다. 도는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에 대해 “광주시 입장을 존중하고 노선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예타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 (노선 변경은) 예타 통과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지역 노선은 광주 시에서 정할 일이지만, 다만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으로 타당성 조사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을 도에서는 걱정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시간을 연장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광주시 안은 받아들일 것”이라며 조건부 수용을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예타 통과가 제1과제고, 광주시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설득해 광주 노선

변경을 이뤄낸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취지다.
예타 중지 신청은 광역철도가 맞물려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 3개 지자체가 합의해야 가능한 사안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광주 상무역에서 나주 남평역·혁신도시·KTX나주역까지 총 연장길이 26.46km 구간(광주 12km·전남 14.46km)이다.
예상사업비는 1조5192억원이며 노선에 광주 효천역이 추가될 경우 2.31km가 연장돼 사업비는 2600억원이 증가된다.
변용일기자

‘최대 25.8cm 폭설’ 광주·전남...빙판길·교통사고도 ‘속출’

광주 50건·전남 57건...시내버스 우회하고 여객선·여객기 취소 등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2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운수C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사흘동안 최대 25cm에 달하는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낙상·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2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와 전남 12개 시군(나주·장성·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흑산면제외)·진도)에 대설특보가 유지되고 있다.
누적 적설량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광주 광산 25.8cm, 장성 상무대 21.6cm, 함평 월야 17.4

cm, 영암 학산 16.2cm, 무안 전남도청 15.8cm 등이다.
사흘동안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빙판길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광주소방본부에 집계된 관련 사고 건수는 50건이다. 낙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8건, 기타 안전조치 5건이다.
전남소방본부는 같은 기간 57건(교통사고 28건·낙상 14건·기타 안전조치 15건)을 접수

하고 조치했다.
이날 오전 6시46분께 나주시 왕곡면 한 도로에서 눈길 미끄러짐에 따른 버스와 승용차 사이 추돌 사고가 있었으나 환자 이송은 없었다.
같은날 오전 4시47분께는 나주시 송월동에서 비상근무에 나서던 공무원 A씨가 빙판길에 넘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오전 4시30분께 해남군 문내면에서 남성이 빙판길에 넘어져 다리 등을 다쳤다. 전남 오후 10시24분께 영암 삼호읍 도로에서는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운전자 등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에서도 전남 오후 11시50분께 북구 매곡동 한 도로에서 남성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손목 등을 다쳤다.
폭설 여파로 인한 교통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시내버스 35개 노선(268대)이 우회·단축 운행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도로 8곳이 통제됐다. 여객선 53항로 80척 중 43항로 61척, 여수공항을 오가는 여객기 7편이 결항됐다. 무등산과 내장산, 월출산, 다도해 등 일부 국립공원 입장도 통제됐다.
제설 작업에 나선 행정 당국은 광주 501개 노선 649km, 전남 383개 노선 4440km 구간에 제설제 4736t(광주 910t·전남 3826t)을 뿌려 도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김승권기자



“겨울이 좋아요” 눈싸움하는 아이들 24일 광주 북구 효죽어린이공원에서 야외활동을 나온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원생들이 눈싸움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전남 독감환자 지난해보다 2.2배 증가...“손 씻기 철저”

겨울철 독감이 기승이다. 전남에서만 독감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24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1월 중순까지 전남지역 호흡기 환자 255명 중 77명(30.2%)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3.5%)보다 2.2배 늘어난 규모다.
또 지난해와 달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유형이 A형(77.3%) 뿐만 아니라 B형(22.7%)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하수기만 감염병 감시사업을 통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독감환자 증가 추이와 비례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도 증가하는 유의미한 결과도 확인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감염병 복합 유행(말티데믹)이 현실화되고, 동시 감염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양이 10배 가량 증가하며, 염증 반응과 장기 손상까지 일으켜 중증과 진행과 치명률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건강한 밥상의 시작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



